

## 29세 발달장애 아들 위해 광주로 이사온 중년 부부

### 시설·정신병원 번번이 퇴소...마지막으로 광주행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센터서 전문적 돌봄

“우리 아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 해하는 것을 보고 부모인 저희도 이제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하루 하루가 큰 감동이지요.”

지난 2월 광주에 터를 잡은 심모(60)씨 부부. 부부가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낯선 광주를 찾은 이유는 아이를 살리고, 자신들도 살아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심씨의 아들은 29세로, 30대를 앞둔 성인이지만 1대 1 보살핌 외에는 부모가 함께 돌보기도 힘든 지적장애 1급,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그동안 시설과 정신병원 등을 전전했지만, 도전적인 행동 탓에 몇 개월 만에 쫓겨나듯 번번이 퇴소당할 수 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도전적이고 거친 행동을 보이기 일쑤였고, 부부는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평범한 일상조차도

이어가기 힘들었다. 심씨는 “우리 부부는 점점 지쳐가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울증, 불안 증세가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 사업을 시작한다는 우연히 사실을 접하고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주로의 이사를 결행했다.

아들이 맡겨진 곳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돌보는 곳으로, 더 이상 갈 곳 없는 심씨 가족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24시간 1대 1 돌봄 덕분에 심씨 부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다. 아들은 주중에는 센터에서 정서적 여가활동과 사회 적응훈련, 일상 생활훈련과 인지학습 등을 하고, 이후

에는 지원주택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식생활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받는다.

특히, 특수교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아들의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긍정적 행동을 지원하는 ‘행동 수정’을 병행하면서 아들의 상태는 나날이 나아졌다.

심씨 부부에게 광주는 ‘희망의 땅’이다. 심씨는 11일 “아이가 변하면서 희망도 싹이 텄다”며 “정착 초기에 너무 막막해 무작정 시청을 찾았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방법을 찾아준 시청 직원들과 센터 관계자, 정책을 추진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단계인 융합돌봄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설과 정원을 늘리는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광주의 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모두가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길 두 손 모아 빌어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은 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 장애인복지관 2곳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개설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에 입소한 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왼쪽)이 11일 아버지와 함께 외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된다. 각각 130㎡, 270㎡ 규모로 그룹활동실, 개인활동실, 심리안정실로 구성돼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각각 4명씩, 모두 8명을 지원하고 있다.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복지관 활동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간활동

을 마친 후 지원주택으로 이동,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받는다. 주말·휴일에도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 주 1회 또는 월 1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최이슬기자

## 장흥 장평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집수리 봉사 완도군, 어르신 정신건강 돌봄 ‘찾아가는 프로그램’ 실시



장흥군 장평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최근 집이 낙후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가구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부엌 중천장 시공) 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대상가구는 난방 효율이 매우 낮은 오래된 주택으로, 특히 부엌 내부가 매우 높아서 보일러 가동할 때 열기가 느껴져서 불편함을 겪어 왔다.

대상자 남모씨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아침, 저녁으로 추위를 느낄 정도여서 부엌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특히 다가올 이번 가을, 겨울이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중천장을 만들어 주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홍=김도영기자

###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추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활동 제약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의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완도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정신 건강 증진과 우울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우울감 경증 이상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먼저 지난 7월 65세 이상 어르신 105명을 대상으로 자살 및 코로나19 관련 설문, 우울 선별 검사, 삶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

는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 조사 결과, 우울감 경증 이상 어르신 1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를 활용, ▲노화에 대한 인식 ▲우울과 수면 ▲우울과 통증 ▲우울과 규칙적인 생활 ▲행복한 노년 등을 주제로 5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급면 김OO 씨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가는 것도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찾아와 알기 쉽게 다양한 교육을 해줘서 고맙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전했다. 김선중 보건의료원장은 “가정 방문을



통한 일대일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자살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